

백신 접종 앞두고 어르신들은 '고민 중'

광주·전남 75세 이상 내달부터 접종... 일부지역 접종 응답 50%대 머물러
"건강한 아버지는 이번에, 체력 약한 어머니는 다음에" 가족회의서 결정도
광주공원서 만난 어르신에 물어보니 10명 중 6명 "지금 당장 맞지 않겠다"

#담양군에 사는 A(78)씨는 옛제 면사무소에서 전화를 받고 난 뒤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면사무소 직원 전화였다. 언론 등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접한 터라 지금 맞는 게 적절한지, 접종 직후 나타날 증상들을 본 뒤 천천히 맞는 게 나을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A씨는 광주에 사는 자녀 뿐 아니라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 재차 물었지만 자녀로부터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의 자격격리가 이뤄지면서 접종 대상자 파악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10명 중 6명은 백신을 지금 당장 맞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들 노인들은 "고령에다 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지병을 1-2개씩 갖고 있는데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김모(88·광주시 남구 사직동)씨는 "고지혈증,

심근경색이 있는 노인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데, 백신을 믿고 맞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백신 접종 뒤 나타나는 증상들을 지켜보면 천천히 맞을 생각이라는 게 노인들 생각이다.
고령 부모를 둔 자녀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인 최모(53)씨는 최근 삼남매 가족회의를 거쳐 부모님의 접종 여부를 결정했다. 이들에 걸쳐 형제들 간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뒤 부모의 접종 여부를 결정했다.
최씨는 "78세인 아버지는 비교적 건강하시니 백신을 맞도록 했고 어머니는 체력이 떨어지셔서 언제 맞을 시기가 다시 올 지 모르겠지만 우선 접종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접종(만 65세 이상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동의율도 88.7% 수준으로, 지난 1분기 만 65세 미만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동의율(95%)에 못 미치고 있다.
최진수 광주시 코로나19 민간전문가 지원단장은 "고령자들이 각종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지병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요양병원 백신 접종 23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65세 이상 환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노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접종 대상자들이 고령의 지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데다, 백신 부작용 소식도 들려오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만 75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들도 당당히 걱정이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대상자는 광주 8만6000여명, 전남 21만 7000여명 등 30만명이 넘는다.
시·도는 일선 사·군·구 등 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투입,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접종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50%대에 머물고 있다.
당장, 광주시 서구의 경우 18개 동 전체 접종 대상자(1만7968명) 중 양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동에서 대상자들의 접종 동의를 받은 결과, 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 3동에서는 주민센터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체 직원들

'사법 농단' 첫 유죄 전직 판사 2명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끝에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들 2명이 처음이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청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

미얀마 희생자 추모행진 27일 옛 전남도청 앞

미얀마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쿠데타와 군부의 폭력을 규탄하는 행사가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다.
23일 '미얀마 광주연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 "미얀마의 봄 '혁명 희생자 추모행진'이 진행된다.
이 추모행진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200여명의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한편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 및 폭력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교·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미얀마사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동참도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시작 30분 전부터 등록 및 발열체크를 실시한 뒤 시작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침묵시위를 진행한 뒤 추모행진이 이어진다.
미얀마 광주연대 이기봉 집행위원장은 "사전 등록된 100명의 참석자들이 미얀마 열사의 영정을 들고 분수대를 둘러 싸고 진행 될 예정이다"면서 "일반 참석자들도 미얀마상황을 알리거나 추모할 수 있는 피켓 등을 들고 넓은 광장에서 자유롭게 참여가능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식 열풍에 '주식 중독' 호소도 급증

도박문제관리 광주전남센터 61명 상담...전년비 2배 이상 늘어

'주식 개장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다',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 '주식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주식 매매를 위해 가족 모임 등 중요한 일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한 적이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가 꼽은 '주식 중독' 증상들이다. 지난해 쪽 이어진 주식시장 상승세 속에 주부, 학생 등 주식에 관심이 없던 계층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주식 중독' 증상을 호소, 상담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중독' 증상으로 센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한 이들은 61명으로 지난 2018년 같은 증상으로 센터를 찾은 사례(29명)에 견주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식 투자에 몰입하면 중독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 개념이 아닌 투기로 변질된다면 도박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센터 측은 주식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없는 돈을 만회하기 위해 '추격 매수'를 했는지 여부 ▲일상생활의 가능 여부 등을 꼽았다.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주식을 구매하고 손실액이 생기면 이를 회복하

기 위해 주식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추격매수의 경우는 본전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도박중독의 기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금전 문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질 정도로 통제력을 잃는다면 치료가 필요한 중독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한은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때문에 주식과 가상화폐 등이 투자가 아닌 중독의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고 20-30대에 중독 현상이 확산한다"면서 "주식 중독과 가상화폐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은 바로 드러나지 않고 2-3년 후 더 큰 사회문제로 나아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돕는 공공기관으로 도박중독 전문 상담 전화(1336)를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대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수습하려고 국도변에 정차해놓은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3일 낮 12시 40분께 고흥군 남양면 남양교차로 인근 15번 국도에서 A(여·23)씨가 몰던 SUV가 도로변에 세워진 B(78)씨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B씨 차량 옆에 세워진 C씨 차량 탑승자 4명이 다쳤다.
B씨 등은 C씨 차량과 발생한 추돌 사고로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사고를 수습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면허를 따지 얼마되지 않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고 수습하려 정차한 차량 추돌 고흥에서 1명 사망·5명 부상

20대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수습하려고 국도변에 정차해놓은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3일 낮 12시 40분께 고흥군 남양면 남양교차로 인근 15번 국도에서 A(여·23)씨가 몰던 SUV가 도로변에 세워진 B(78)씨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B씨 차량 옆에 세워진 C씨 차량 탑승자 4명이 다쳤다.
B씨 등은 C씨 차량과 발생한 추돌 사고로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사고를 수습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면허를 따지 얼마되지 않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지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인기리 판매중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기를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최신간 양장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